

2014 년 7 월 13 일 주일 설교

"땅에서 천국 살기"(Living Heaven on Earth)

창세기 25:19-34

1.

지난 주에 묵상한 24 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찾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릅니다. 그런데 24 장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인 25 장으로 넘어오면 마치 천국에 있다가 세상으로 내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20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세월을 지냅니다. 자식만 생기면 아무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의 기쁨도 잠깐, 리브가는 임신 중인 10 개월 동안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한 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쌍둥이 아들이 암투를 벌입니다. 거기에 부모의 편애가 더해져서 남편과 아내가 아들 하나씩을 잡고 눈 먼 사랑 싸움을 합니다.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야곱은 도피성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 가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24 장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임한 천국 이야기'라고 이름 짓는다면, 25 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천국이 사라진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 렉서너리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적 생활이란 문제 투성이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때, 세상 풍파가 높고 거칠어도 마음 안에는 든든한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을 '내 안의 천국'(Heaven in My Heart)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모두가 혹은 교인 모두가 혹은 직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으며 순종할 때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직장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것을 '땅 위의 천국'(Heaven on Earth)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한 천국과 땅 위의 천국은 언제나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은 조건이 맞는 곳에 저절로 형성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천국이 임하고 머무르도록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사인을 놓치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만, 때로는 다시금 죄의 굴레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속에 임한 천국이 사라지고, 그럴 때마다 땅에 임한 천국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도, 여전히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듯,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었다가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인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잊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욕망과 투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때로 내 마음은 풍량이 이는 밤바다와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내 가정, 내 교회 혹은 내 직장이 온갖 문제로 뒤엉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으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가면 거짓말처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별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교인들의 수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인을 읽기 위해 그리고 그 사인에 민첩하게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욕심이 고개를 쳐들고 유혹에 눈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늘 같은 상태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항상 깨어서 살아감으로 늘 천국을 살려고 힘쓰지만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막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 과거의 모든 영적 체험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합니다.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 상황이 어떻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별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만 생각하면, 함람 미달인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가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교양이나 인격에서 희망을 찾으려면 필경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적 생활에 힘쓰십시오. 영적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설사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옥같은 현실에도 천국이 임합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인을 읽어가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회자료> 2014 년 7 월 13 일 주일 설교
"땅에서 천국 살기"(Living Heaven on Earth)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42 장(통 499)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창세기 25 장을 읽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겪었던 문제들을 살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마음의 천국'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3)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4)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인해 고통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6. 기도
 - 1) 영적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기도하십시오.
 - 2) 선교지에 가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438 장(통 495)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